목탁소리일까 기합소리일까?

(사사기 7:15~25)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목탁소리일까 기합소리일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목탁소리일까 기합소리일까'
목탁소리와 기합소리는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목탁'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을 때든지 예식 때에도 쓰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기능은 수도승들이 수행을 할 때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번뇌와 잡념을 깨뜨리는 신호로서의 역할입니다. 잡념과 번뇌가 생길 때에 목탁을 두드리면 청아한 목탁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서 번뇌와 잡념이 깨어지고 독경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목탁은 자기 내부의 번뇌와 잡념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합'은 이와는 정반대로 상대방을 더욱 강력하게 압도하고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건을 들 때에도 '얍!'하고 기합을 넣습니다. 이 기합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 투포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면서 던질 때와 기합을 넣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육의 힘을 수치를 표현했을 때 기합을 넣었을 때는 265가 나오는데, 기합을 넣지 않으면 238이 나왔습니다. 근육의 힘을 전기적으로 측정해보아도 기합이 없을 때에는 328마이크로볼트 밖에는 되지 않는데, 기합이 있을 때에는 근육의 전기적 힘이 무려 515마이크로볼트라고 합니다. 기합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식축구 선수들 경우에는 시합하러 나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서로 짝을 맞춰서 '이길 수 있다'고 외치며 동료의 뺨을 친다고 합니다.

목탁을 치는 것이 전적으로 내부의 번뇌와 잡념을 깨뜨리기 위한 자기지향적인 일이라면, 기합은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제압하고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외부지향적인 성격을 띱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듭니다. 전쟁터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기이한 행동들이, 목탁과 기합 소리 중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밝힘으로 우리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백 명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합니다. 삼백 명을 백 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미디안을 둘러싸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쟁 때에는 나팔수만 드는 나팔을 삼백 명 모두에게 가지게 하고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게 하는데, 이것이 미디안과 그 동맹국들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한 무기의 전부입니다. 기드온도 기드온이지만 삼백 명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적군이 메뚜기 떼처럼 많고 모래알 같이 많은 전쟁용 낙타로 무장을 하고 무지막지하고 월등한 군사력의 적군을 몸소 확인하면서도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라'는 기드온을 황당하게 바라보지 않고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삼백 명과 기드온에게는 누구의 손에도 창이나 칼이나 방패 하나 쥐어져 있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서 몇 번에 걸쳐 표징을 확인했으니 그렇다 치고라도 삼백 명은 기드온이 경험한 표징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싶습니다.
이제 행동에 돌입함에 있어서 기드온이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고 명하므로 그 지시대로 행하게 되고, 20절에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라고 합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구호로 적군을 향하여 돌진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새카만 밤 이경(10~2시 사이)에 잠든 적군을 둘러싸고 제자리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요란스럽게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보통 이럴 때에는 '나의 칼을 받아라.'라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가만히 서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완전 코미디입니다.
적군인 미디안을 무찌르려는 전투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전투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도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들지 않았으니 어떻게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상한 행동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구호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해설서를 보니 적들을 향한 이 행동의 지배력과 영향력에 대해, 10시부터 2시 사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팔 소리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삼백 개의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면

혼비백산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인데 질문을 해봅니다. 적들에게 이러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없었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었습니까?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가 한 이상한 행동이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있든 없든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깁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누구하나 나팔을 불지 않았어도 나팔 소리가 나고 산이 진동하고 횃불 대신에 번개와 우레가 내리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통째로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면 기드온과 삼백 명은 멀리서 숨죽이고 구경만 해도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 번 뒤집어서 생각해봅니다. 삼백 명의 한 행동이 미디안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이 소리가 기합 소리의 의미가 아니라 목탁 소리의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삼백 명이 십삼만 오천 명이 잠들어 있는 진영에 접근해 갈 때 보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조금만 부주의해서 적군이 눈치를 채거나 보초에게 발각이 된다면, 정신없는 사이에 삼백 명이 각자 수십 명을 죽인다고 해도, 십삼만 오천 명을 당해낼 수가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불빛이 새어나가서도 안 됩니다.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에 갖게 되는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방귀라도 뀌었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미디안이 일어나면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이 너무나 우스운 것은 삼백 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 밤중에 얼마나 크게 들리고, 자동차 한 대 없는 그 옛날에 횃불을 들자 새까만 밤에 얼마나 밝게 보였겠습니까? 이 모든 행동들은 미디안의 보초들이 기드온과 삼백 용사를 발견했을 때 자기 동료를 깨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오히려 미디안을 깨우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소리는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한 기합소리가 아닙니다.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돌진을 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목탁 소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목탁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디안을 둘러싼 삼백 명의 마음에 생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깨버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자 두려움의 원천인 미디안 앞에서 그것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나팔소리와 횃불을 드는 것의 의미는 모두가 두려워 떨 때에 기드온이 먼저 용기를 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벌벌 떨던 자들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다 깹니다. ‘미디안이여!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맞서보아라’라고 외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드온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름을 같이 부른 것은 기드온을 여호와와 동급으로 대

우함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들어왔던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기드온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심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인격적 존재를 가리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실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즉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을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바로 내가 나가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기합 소리가 아니라, 미디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어진 두려움과 염려의 장막을 찢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는 목탁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향해서 돌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목탁 소리를 내어서 두려움과 염려의 장막을 찢고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대적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깨어난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하여 괴멸되기 시작하고, 이윽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자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갈을 보내어 그들을 전멸시키게 합니다.

과거에 기드온조차도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농사지은 밀을 당당하게 타작하지도 못하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미디안의 실체가 고작 이러한 모습이고 싱겁게 스스로 자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전에는 미디안이 왜 그렇게 강성하게 보였던 것일까요? 미디안이 내 마음에 주는 두려움의 크기만큼 미디안은 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민이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볼 수만 있다면 이것들은 먼지만도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우리 삶에 주는 악영향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마음이 문제로 뒤덮이게 하므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또렷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싱겁게 끝날 문제들이 큰 문제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심리상태와 삶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목탁이 필요하고 목탁소리가 필요합니다.
선민은 그 문제를 스스로 깨뜨리겠다고 기합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제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합을 넣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문제로 인해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면의 두려움을 깨는 목탁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탁 소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는 죽었다. 너의 죽음을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문제에 압도 되어 있는 나의 죽음입니

다.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고 죄인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묘사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대신에 '여호와를 위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위하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여! 될 대로 되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문제가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외치다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서 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설속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십삼만 오천 명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스스로 없어져버리는 그런 삶의 현실을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여! 올 테면 와 봐라. 나는 십자가 붙잡고 네(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련다.'라고 하나님을 보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선민의 싸움은 내 마음이 문제 앞에서 기합소리를 내며 해결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문제로 인해 주어지는 염려와 두려움을 깨뜨리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목탁 소리로 나의 내면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보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까지 가면 100%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거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문제에 마음이 짓눌릴 때에 정말 어떻게 헤어나야 할 바를 모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외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볼 때까지, 내면의 싸움을 통하여 기드온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